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 토론

남 현 석 한백중학교 교장

## 1.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 예정으로 고시를 앞두고 문서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주요 사항에 대해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총론 및 각론의 모습도 보다 구체화되면서 일부 내용이 조정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학습자, 교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연구와 요구 분석 및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 새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정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보완되는 등 세부적인 문서화 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의 변화 요구보다는 국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에 의해 당초의 개정 지향점이나 취지가 후퇴하거나 조정되면서 이해 당사자 간에 또 다른 불만과 부족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방향은 미래의 역량있는 글로벌 시민, 직업인으로서 삶의 유연성이나 현장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서 사고를 자극하고, 지식과 기능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생 참여식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하겠다.

지금 교실에서는 핵심 성취기준 기반의 교육과정(교과서) 재구성을 통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수업 몰입도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력 저하가 없는 열정적인 교사들의 수업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교과 간, 교과 내에서 교사간의 노력에 의해 융합 수업 도입 등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통합적,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하고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 미래 필요 역량을 함양시키면서 현재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학습 결과(성적) 못지않게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학생중심의 수업, 학생이 주도하고 교사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실의 변화하는 모습이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지향점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전문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으로 제시한 것과, 이를 갖춘 인간상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4대 인간상으로 제시한 점, 이에 대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정리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4대 인간상을 교과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토록 한 것은 교육목표-교육 내용-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 구현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2.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금년도까지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편성·운영은 학력 저하라는 학부모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키울 수 있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중학교의 동시 운영을 위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및 확보와 적절한 분산 노력,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역량 지원을 위한 후속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발표자의 지적대로 자유학기제의 활동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일부 명칭/중복성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하여 창체 활동 시간 순증이나 체육, 예술 교과 외 교과 20% 감축을 통한 편성·운영, 창체 활동 시간의 활용 가능성 등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학교/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여기에 법령에서 이수를 강제한 다양한 영역/내용의 범교과 학습 등의 과도한 이수/실적 제출 요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창체활동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순증을 통해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 대주제로 범주화하여 교과와 창체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학교의 세부 내용 영역별 이수 강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현재의 창체활동 영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간 몇 시간 이상 필수 이수와 그에 대한 실적 제출(보고) 등의 단서가 계속 유지된다면 창체활동은 도입 취지를 여전히 살리지 못한 채 범교과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범교과 학습 내용의 제대로 된 교육과 함께 창체활동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범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교과 통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국가 수준에서 법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영역의 범교과 내용을 모든 교과목에서 조사하여 과목-단원을 정리한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안내하거나 교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교과목 수업시 통합적으로 교육하도

록 하고, 이수(교육) 실적 제출은 하지 않도록 해야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유사 범교과 학습 등에 대한 이수 여부, 시간 조사 제출 요구가 집중되는 한 교과목이나 창체활동과의 통합적 수업은 형식,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필수 이수 교과목과 이수 단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의 개설과 정상적인 이수 여부는 진로(진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결국 도입, 개설 취지와는 별개로 입시와의 연계 정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가 인성 교육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이 먼저 발 벗고? 뛰어들고,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학교라는 공교육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또 다른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공통과목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 과목으로의 구분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위한 통합 교과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교원 소요, 시설, 예산 등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과 선택권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나 교육과정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2009 이전에 특목고의 보통 교과목들이 전문교과목으로 구분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의 심화과목으로 통합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전문교과1로 구분되는 것은 교육과정/교과서의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나 특수성의 필요성과 선택권의 확대 측면이라는 점에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고에서 보통교과목뿐만 아니라 전문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선택할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모쪼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과정의 지침서,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감사합니다.